

권력에 연연하면 富 날아간다

경주 최 부잣집 300년 富의 비밀

전진문 지음
황금가지 펴냄 9천9백원



300년 만석꾼 집안의 12가지 비밀

1. 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위만을 갖는다.
2. 함께 일하고 일한 만큼 가져간다.
3.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정한다.
4.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한다.
5. 때를 가려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린다.
6. 지나치게 재산을 불리지 않는다.
7. 근검절약정신을 실천한다.
8. 이득이 힘든 일일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행한다.
9.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한다.
10. 자신을 낮춰 상대가 경계하지 않도록 한다.
11. 덕을 베풀고 몸으로 실천한다.
12. 가지기 있는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기쁘게 버린다.



최 부잣집의 인채 전경(사진 위)과 쌀 800석이 들어간다는 곡식 창고

옛말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다. 부(富)를 얻기도 힘들지만 지키기도 힘들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10대를 이어온 부자가 있으니, 바로 경주 최 부잣집이 그 주인공이다. <경주 최 부잣집 300년 富의 비밀>은 1600년대 초 경주에서 처음 가문을 일으킨 최진립에서부터 광복 직후 모든 재산을 바쳐 대학을 설립한 최준에 이르기까지, 300년 동안 거부(巨富)로 살아온 경주 최 부잣집의 숨겨진 노하우의 부의 비결을 파헤친 책이다.

경영학 박사인 저자는 경주 최 부잣집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의 독특한 가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그 집안에는 정신적 기반과 경영 철학의 역할을 한 가훈(家訓)이 있었다는 것이다. 가훈은 총 여섯가지다.

첫째가 최소한의 양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보되 절대 진사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덕에 높은 벼슬에 올랐다가 정쟁에 휘말려 집안이 화를 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었다.

둘째,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는 것이다. 1만석 이상의 재산은 소작료를 낮춰주는 식으로 이웃에 돌려 결국 사회에 환원했다.

그리고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마라. 가문의 며느리들에게는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웃을 입혀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예컨대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없어 찻값으로 내놓을 게 뻔한 논밭을 헐값에 사들여 재산을 늘릴 수도 있었겠지만 최 부잣집은 그게 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남의 가난을 축재의 기회로 잡는 대부분의 사람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미덕이다.

얼핏 들으면 최 부잣집의 가훈은 지금의 시대상황과 맞지 않아 보이지만 정도(正道)를 걷는 근본 정신만은 벤치마킹해도 좋을 것 같다. 최 부잣집은 바로 가훈에서 지손들에게 해서는 안 될 것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최 부잣집이 300년에 걸쳐 모으고 지켜온 재산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저자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최 부잣집의 마지막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최준의 행적을 쫓는다.

조선총독부로부터 여러 차례 관직을 제의받지만 "스스로 성질이 괴팍한데다 안하무인이어서 그 자리에 맞지 않는다"며 번번히 거절했던 최준은 백상 상회를 설립해 모은 돈을 남몰래 광복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총독부도 이에 지지 않고 중추원 참의직을 다시 제안하자 집안 회의 끝에 동생인 최윤이 그 자리를 수락함으로써 자신은 친일의 오명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결국 최준은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교 청구대학을 세우는 데 전 재산을 바치고 1950년 일선에서 미련 없이 물러났다고 한다.

실제로 경주 최씨 가문을 일으킨 사람은 임진왜란때의 영웅인 정무공 최진립이었다. 그는 양반의 지위를 인정받는데 필요한 최소의 조건인 진사 벼슬만을 유지한 덕분에 혼란기의 정쟁에 휘말리지 않았다. 저자는 최진립 이후 10대에 걸친 300년동안

부와 명예를 지켜온 최씨 집안의 처세 비결과 숨겨진 노하우를 "어떤 정파와 결탁하여 특수한 관계가 되면 그 기업의 생명은 오래갈 수 없다"는 식의 경영학 논리로 풀어간다. 더구나 최진립은 6남 1녀의 자식들에게 균등하게 재산을 분배했다.

이후에도 역시 이 가문이 부를 오래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관직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문의 누군가가 높은 벼슬에 올랐다면 단언컨대 부의 전통은 끊기고 말았을 것이다. 당쟁이 그 관리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족 모두가 화를 면하기 어려웠을 테니까 말이다. 특히 이 대목은, 우리나라의 재벌들과 정치인들이 시대를 초월한 이 진리를 명심하고 실천했다면 비자금 파동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만은 생각이 뇌리를 스치게 만든다.

어쨌든 이 책은 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 약간의 고리타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진정한 부를 모으고 유지하며 올바르게 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석(定石)으로 알려줘 신선하게 다가온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지혜를 채워드립니다.

채우는 것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如是我聞에 오시면 가슴 깊이 오래 남을 수 있는
지혜를 채워 드리겠습니다.

여시아문은 깨침의 문이 열리는
지혜의 방입니다.



禪바람 부는 봄날 禪書 읽으며

따귀 두대를 맞고 스승을 만나 반야의 웃음을 걸걸 웃는다.

'선원장 법회 특화 코너'

선지식 12분을 '여시아문'에서 만나세요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책방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인터넷 도서주문 yosiamun.com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법공양 상담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인생 역전



불량소년의 꿈
요시이에 히로유키 지음/남도현 옮김
양철북/8천원



폭력과 패륜
일삼던 소년
모교 교단에
서기까지...

인연이나 각종 마스크에서는 학교내 폭력이 이미 심각한 수위를 넘었다고 떠들어댄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나는 몸담고 있는 학교가 시골이어서 인지 체감온도가 별로 높질 않다. 그렇지만 교육의 현안이 있다보면 '학교 폭력'은 결코 남의 일처럼 간과할 수 없다.

이런저에서 최근에 읽은 <불량소년의 꿈>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준 내용들로 가득했다.

우선 이 책은 학교 내에 폭력서클을 만들고, 받거리를 폭주하고, 심지어 선생님에게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불량소년이 교사가 된 이야기다. 수렁에서 빠져나와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된 드라마틱한 내용이라서 이 책이 처음 발간된 일본 내에서 화제를 일으켰다.

이 책의 저자인 요시이에 히로유키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1971년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는 불행한 어린시절을 겪으면서 비틀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 폭력서클에 가입하지만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 그는 '왕따'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한 사람'이 되고자 점점 난폭해져 갔다. 집에서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동생과 누나를 구타하고, 새엄마를 밀어버리고, 터덜(격투할 때 손가락 관절에 끼는 쇳조각)을 손에 끼고 아버지를 때려 입원시키기까지 하는 패륜을 일삼게 된다. 결국 담임선생님의 머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사고를 일으켜 학교에서 퇴학당한다.

만신창이가 된 그가 돌아갈 수 있었던 곳은 일종의 대안학교인 호쿠세이 고등학교 뿐이었다. 이 학교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다치 선생님을 만나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큰 변화를 일으킨다. 그는 졸업 후 법대로 진학하지만 4학년 때 오토바이 사고로 중태에 빠진다. 역시 아다치 선생님은 면밀히 마다하지 않고 훗 카이도에서 요코하마까지 병문안을 와서 정성껏 간호한다. 그리고 말한다. "너는 결코 쓰러지면 안 된다. 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28세때 저자는 자신의 존재를 구원해 준 아다치 선생님처럼 마침내 모교에서 교사가 되는 꿈을 이룬다. '교육에 있어서 경험만큼 소중한 가르침은 없다'는 말처럼 요시이에에는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불량소년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가르치는 참 교사로 거듭난다. 자신의 스승인 아다치 선생님처럼...

이 책은 부모나 교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기가 되며, 한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지를 다스린 번 깨닫게 해 준다.

박선영 (정선 고등학교 교사)